

일반 대중들의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도 조사

황도연*, 박제모*, 김희동*, 황재현*, 신지혜*, 정화식*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본 연구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국내 작업치료 인지도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광주·전남지역의 인구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일반 대중을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조사에 동의한 2,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먼저 피설문자에게 작업치료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 다음 설문을 진행하고 모르겠다고 대답한 경우에는 설문자가 조사용지에 체크한 후 설문을 종료하였다. 설문내용은 작업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 4문항과 작업치료 필요성 4문항으로 구성하여 배포 및 회수하였다. 자료 분석은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한 최종 2,967부를 분석하였다.

결과: 작업치료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2명(8.5%), 그렇지 않다는 2,715명(91.5%)이었다. 연령대와 직업에 따른 작업치료 인지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 < .001$)를 보였으며 인지한다고 응답한 252명 중 20대(28.6%)와 학생(41.7%)의 인지도가 다른 군에 비해 높았다. 작업치료가 우리생활에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215명(85.3%)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향후 작업치료의 전망에 대해서는 5점 척도에서 평균 $3.73 \pm .75$ 점으로 상당히 높은 평가결과를 보였다.

결론: 본 연구결과 최근 작업치료분야가 예전에 비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낮음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작업치료 인지도 개선을 위한 방향설정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을 희망한다.

주제어: 인지도, 인지도 조사, 작업치료, 작업치료 현황

I. 서론

작업치료란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 의미 있는 치료적 활동(작업)을 통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 교육하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분야이다(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7).

작업치료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시기는 1950년 6·25 한국전쟁으로 당시 전쟁터에서 심각한 상황에 처한

ORCID: Hwang, Do-Yeon, <http://orcid.org/0000-0002-2801-5664>

Corresponding author: Jung, Hwa-Shik (hsjung@dsu.ac.kr/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shin University)

Received 20 October 2017; Revised version received 25 November 2017; Accepted 18 December 2017

군인을 치료하기 위해 미군의 감독 하에 작업치료가 시작되었다(Christiansen, & Haertl, 2013). 이후 1975년 본격적인 작업치료사 수습제도가 시행되었고, 1997년 의료기사 수습제도가 폐지되면서 전문교육기관에서 작업치료를 전공하여야만 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88년 4월 세계작업치료사연맹에 49번째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오늘날의 발전에 이르렀다(Choi et al., 2014). 2017년도 1분기를 기준으로 면허 취득 후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치료사의 수는 2013년 3,952명, 2014년 4,562명, 2015년 5,067명, 2016년 5,689명, 2017년 6,3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7).

이와 같이 작업치료는 보건의료의 한 전문분야이며, 전문교육을 받고 배출된 작업치료사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도는 비교적 낮은 실정이다(Jang et al., 2014; Song et al., 2010). 여기서 인지도란 사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기억하며 사고하는 정도로 종종 인식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인식의 사전적 의미는 의식하고 지각하는 작용의 총칭이라는 점에서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Kim, 2000). 하지만 몇몇 연구들에 있어서는 인지도와 인식도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인지도'란 하나의 용어로 일관성 있게 사용하고자 한다.

작업치료 인지도에 대한 연구로 국외의 경우 Mu, Royeen, Paschal와 Zardetto-Smith(2001)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작업치료 및 물리치료에 대한 인지조사를 하여 작업치료와 물리치료에 대한 아동의 이해 범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Olaoye, Emechete, Onigbinde와 Mbada(2016)는 나이지리아의 Obafemi Awolowo University 의료계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도 및 지식 조사를 통해 여러 보건 전문가들의 학습 공유와 작업치료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경우 Park(2009)은 장애아동 부모를 대상으로 작업치료 현황 및 인지도를 파악하여 바우처 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고, Song 등(2010)은 부산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작업치료과와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도를 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인 학과 홍보를 하고자 하였으며, Jung과

Jang(2013)은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람들의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조사를 실시하여 재활치료의 팀 접근에서 전문가들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였다. 또한, Lee와 Kim(2011)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작업치료 이미지를 분석하여 작업치료 이미지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Park 등(2011)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선택 요인에 대한 인지조사를 통해 작업치료(학)과 교육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상자가 장애아동 부모, 학생 등 특정한 집단으로 국한되어 있어 일반 대중에 대한 작업치료 인지도를 알 수는 없었다.

작업치료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 Park, Hwang과 Lee(2010)는 음악치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에 관한 연구를 통해 향후 음악치료의 영역 확대와 대중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Kim과 Choi(2012)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인지도 연구를 통해 보조공학에 대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보조공학기기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Cha, Lee, Oh, Lee와 Lee(2015)는 지체장애인의 자가운전에 대한 부산지역 일반인들의 인지도 조사를 통해 운전재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Son과 Kim(2016)은 일반인이 인지하는 어린이집 교사의 이미지 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고 Kim(2015)은 정상 성인에서 치매의 인지도 연구를 통해 치매 관련 공공의료사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Kim과 Kim(2013)은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통해 한방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Lee와 Song(2012)은 한방물리치료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통해 물리치료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였고 Kang과 Song(2017)은 제주 농업 안전보건센터의 일반인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통해 농작업 관련 손상에 대한 예방 교육의 효과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각 전공 분야나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지도 조사는 이들의 발전방향과 전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작업치료 분야도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한 인지도 조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시사하고 있다. 작업치료 인지도에 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일반 대중들의 인지도를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다(Jung & Jang, 2013; Lee & Kim, 2011; Park, 2009; Park et al., 2011; Song et al., 2010). 이에 본 연구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작업치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작업치료 대상 및 받을 수 있는 곳 등의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작업치료 인지도 현실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7년 6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광주·전남지역의 버스터미널, KTX역, 지하철, 변화가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일반 대중을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 조사에 동의한 2,98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피설문자 간의 성별과 연령별 분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무작위할당표본추출 방식(본 연구에서 설정한 표본 프레임에 맞추기 위해 무작위로 표본 크기가 완성될 때까지 표본추출)을 적용하였으며, 설문에 불성실하게 응답한 13부를 제외한 2,967부를 최종 선정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성 50.1%, 남성 49.9%, 연령대는 10대 16.0%, 20대 17.5%, 30대 16.0%, 40대 17.3%, 50대 16.6%, 60대 이상 16.5%으로서 대체적인 분포의 균형을 맞추었다. 직업의 경우 학생(27.6%), 사무직(15.2%), 서비스직(13.2%), 기술직(12.3%), 공무원(8.9%) 순으로 나타났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작업치료 인지도 조사를 위한 설문지는 내적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델파이 조사방식을 도입하였으며, 작업치료학과 교수 3명과 대학원생 2명에게 각각 문항을 구성하도록 한 후 회수하였다. 델파이 조사를 통한 설문지 구성 시 빠진 내용, 중복된 문항이나 그룹화 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많은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수차례의 수정 및 보완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면 “작업치료를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보다는 “작업치료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보다 더 구체적이며 작업치료의 인지도를 반영하는데 효과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설문을 인지여부, 인지경로 및 내용, 인지에 따른 중요성 및 필요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자는데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울러 직업군의 분류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제6차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근거하여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는 서비스업으로, 사무 종사자는 사무직으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

Table 1.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 (%)
Gender	Male	1,481 (49.9)
	Female	1,486 (50.1)
Age group	10s	476 (16.0)
	20s	520 (17.5)
	30s	475 (16.0)
	40s	512 (17.3)
	50s	493 (16.6)
	Over 60s	491 (16.5)
Occupation	Student	820 (27.6)
	Government employee	264 (8.9)
	Service occupation	393 (13.2)
	Office worker	450 (15.2)
	Technical profession	364 (12.3)
	Etc.	676 (22.8)
Total		2,967 (100.0)

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는 기술적으로 답변을 제시하는 것이 포괄적이며 피설문자가 쉽게 답변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일부 문항에 대한 답변은 복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설문은 총 8문항으로 2단계로 구분하여 작업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와 관련된 4문항과 작업치료 필요성과 관련된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작업치료를 알게 된 경로'와 '작업치료 대상'의 경우 Jang 등(2014)의 연구에서, '작업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의 경우 Park(2009)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향후 작업치료의 전망'과 '작업치료 권유 의향'의 경우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3. 연구절차

설문 실시에 앞서 조사자 14명에게 구체적인 설문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자가 먼저 피설문자의 성별, 연령대, 직업군에 대해 물어보고, 이어서 작업치료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는지 질문한 후 “예”로 대답할 경우 다음 설문을 계속 진행하고 “아니오”로 대답할 경우에는 설문자가 조사용지에 체크한 후 설문을 종료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기에 없는 답변을 할 경우 기타에 기록하도록 하였고, 한 항목에 대해 여러 가

지 답변을 할 경우 복수로 체크하도록 하였다. 단, 작업치료학 전공자인 조사자들의 신상에 대해 알고 있는 가족, 친구, 친척 등의 경우 설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그에 따른 인지도 및 필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향후 작업치료의 전망과 권유 의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설문지의 각 문항에 대한 답변의 빈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분석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 α 는 .05로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

Table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작업치료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52명(8.5%), 그렇지 않다

Table 2. Awareness of 'Occupational Therapy' in Accordance Wit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

		Awareness status(%)		Total	$\chi^2(p)$
		Yes	No		
Gender	Male	112(3.8)	1,369(46.1)	1,481 (49.9)	3.30 (.069)
	Female	140(4.7)	1,346(45.4)	1,486 (50.1)	
Age group	10s	46(1.6)	430(14.5)	476 (16.0)	37.06*** (.000)
	20s	72(2.4)	448(15.1)	520 (17.5)	
	30s	40(1.3)	435(14.7)	475 (16.0)	
	40s	41(1.4)	471(15.9)	512 (17.3)	
	50s	36(1.2)	457(15.4)	493 (16.6)	
	Over 60s	17 (.6)	474(16.0)	491 (16.5)	
Occupation	Student	105(3.5)	715(24.1)	820 (27.6)	32.06*** (.000)
	Government employee	21 (.7)	243 (8.2)	264 (8.9)	
	Service occupation	35(1.2)	358(12.1)	393 (13.2)	
	Office worker	28 (.9)	422(14.2)	450 (15.2)	
	Technical profession	27 (.9)	337(11.4)	364 (12.3)	
	Etc.	36(1.2)	640(21.6)	676 (22.8)	
Total		252(8.5)	2,715(91.5)	2,967(100.0)	

*** $p < .001$

는 2,715명(91.5%)이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치료 인지도를 보면 성별에 따른 작업치료 인지 유무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5$). 반면, 연령대와 직업에 따른 작업치료 인지 유무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1$)가 있었고, 20대(2.4%)와 학생(3.5%)의 경우 나머지 연령대와 직업군 보다 작업치료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 60대 이상(16.0%)과 학생(24.1%)의 경우 나머지 연령대와 직업군 보다 작업치료에 대해 들어보지 않았거나 알고 있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치료를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한 252명 중 학생 105명(41.7%)의 경우 10대는 46명(18.3%), 20대는 59명(23.4%)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서 작업치료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는 비율과 그렇지 않는 상대적인 비율의 차이는 모든 집단에서 80%p가 넘게 나타났다.

2. 작업치료에 대한 일반적 인지도 및 필요성 분석

작업치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지도와 작업치료 필요성 분석은 작업치료에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는 252명의 대상자가 응답한 설문지를 참고하였다. 먼저 이들에 대한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은 여성 140명(55.6%), 남성 112명(44.4%)으로 여성이 더 높았고, 연령대는 20대 72명(28.6%), 10대 46명(18.3%), 40대 41명(16.3%), 30대 40명(15.9%), 50대 36명(14.3%), 60대 이상 17명(6.7%)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의 경우 기타 36명(14.3%)을 제외하고 학생 105명(41.7%), 서비스업 35명(13.9%), 사무직 28명(11.1%), 기술직 27명(10.7%), 공무원 21명(8.3%)으로 학생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Table 3).

1) 작업치료를 알게 된 경로는?

작업치료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조사결과 “지인을 통해(36.9%)”, “진로 및 취업 탐색(20.2%)”, “본인(가족)의 치료경험(19.8%)”, “메스컴(17.9%)”, “기타(5.2%)” 순으로 응답하였고 “기타(5.2%)”에 대한 의견으로 “대학교에 학과가 있어서”, “강의를 통해”, “요양병원 근무로 인해”, “장애인 활동 보조를 통해” 등이 있었다. ‘작업치료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일반적 특성의 성별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5$), 연령대($p<.001$)와 직업($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50대(5.2%), 학생(3.2%), 서비스업(3.2%), 기술직(3.2%)

Table 3. How Did You Aware of OT?

		Classification					Total	$\chi^2(p)$
		Treatment experience	Mass media	Acquaintance	Career search	Etc.		
Gender	Male	28 (11.1)	24 (9.5)	35 (13.9)	20 (7.9)	5 (2.0)	112 (44.4)	6.64 (156)
	Female	22 (8.7)	21 (8.3)	58 (23.0)	31 (12.3)	8 (3.2)	140 (55.6)	
Age group	10s	5 (2.0)	9 (3.6)	12 (4.8)	19 (7.5)	1 (.4)	46 (18.3)	66.16*** (0.000)
	20s	4 (1.6)	6 (2.4)	38 (15.1)	21 (8.3)	3 (1.2)	72 (28.6)	
	30s	10 (4.0)	13 (5.2)	13 (5.2)	2 (.8)	2 (.8)	40 (15.9)	
	40s	10 (4.0)	7 (2.8)	14 (4.8)	6 (2.4)	4 (1.6)	41 (16.3)	
	50s	13 (5.2)	7 (2.8)	12 (4.8)	3 (1.2)	1 (.4)	36 (14.3)	
	Over 60s	8 (3.2)	3 (1.2)	4 (1.6)	—	2 (.8)	17 (6.7)	
	Total	50 (19.8)	45 (17.9)	93 (36.9)	51 (20.2)	13 (5.2)	252 (100.0)	
Occupation	Student	8 (3.2)	14 (5.6)	45 (17.9)	35 (13.9)	3 (1.2)	105 (41.7)	45.97** (0.001)
	Government employee	5 (2.0)	3 (1.2)	6 (2.4)	6 (2.4)	1 (.4)	21 (8.3)	
	Service occupation	8 (3.2)	10 (4.0)	12 (4.8)	4 (1.6)	1 (.4)	35 (13.9)	
	Office worker	8 (3.2)	6 (2.4)	9 (3.6)	2 (.8)	3 (1.2)	28 (11.1)	
	Technical profession	8 (3.2)	7 (2.8)	9 (3.6)	1 (.4)	2 (.8)	27 (10.7)	
	Etc.	13 (5.2)	5 (2.0)	12 (4.8)	3 (1.2)	3 (1.2)	36 (14.3)	
Total		50 (19.8)	45 (17.9)	93 (36.9)	51 (20.2)	13 (5.2)	252 (100.0)	

** $p<.01$ *** $p<.001$

의 경우 “본인(가족)의 치료경험을 통해”, 30대(5.2%)와 학생(5.6%)의 경우 “메스컴(인터넷, TV 등)을 통해”, 20대(15.1%)와 학생(17.9%)의 경우 “지인(친구 등)을 통해”, 20대(8.3%)와 학생(13.9%)의 경우 “진로·취업 탐색을 통해” 작업치료를 알게 되었다고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게 응답하였다(Table 3).

2) 작업치료란 무엇인가?

작업치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치료하는 직업이다(53.2%)”, “물리치료와 비슷하다(37.3%)”, “작업이나 일을 한다(6.0%)”, “간호 및 간병을 한다(2.8%)”, “기타(.8%)”순으로 응답하였다. ‘작업치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일반적 특성의 성별과 직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p>.05$), 연령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가 있었다. 20대의 경우 “물리치료와 비슷하다(14.3%)”와 “작업이나 일을 한다(2.4%)”, 30대(12.3%)의 경우 “치료하는 직업이다”, 40대(1.2%)의 경우 “간호 및 간병을 한다”고 나머지 집단에 비해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Table 4).

3) 작업치료의 대상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작업치료 대상에 대한 복수응답결과 “뇌질환 환자(45.2%)”, “근골격계질환 환자(34.1%)”, “정신질환 환자(21.4%)”, “척수손상 환자(18.3%)”, “발달장애 및 뇌성마비 아동(17.5%)”, “노인성질환 환자(15.1%)”, “기타(1.2%)”순으로 응답하였고 “기타(1.2%)”에 대한 의견으로 “장애인” 등이 있었다. 작업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선택으로 “재활병원 및 재활센터(59.9%)”, “종합병원 및 일반병원(39.3%)”, “복지시설(10.3%)”, “보건소(5.6%)”, “기타(1.6%)”순으로 복수 응답하였다(Table 5).

4) 작업치료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이유는?

작업치료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 215명(85.3%), “필요하지 않다” 37명(14.7%)으로 응답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작업치료 필요성을 보면 성별($p<.05$), 연령대($p<.001$), 직업($p<.05$)에 따른 작업치료 필요 유무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여성(49.6%), 20대(25.8%), 학생(32.1%)의 경우 나머지 성별, 연령대, 직업군 보다 작업치료가 우리생활에

Table 4. What Do You Think OT Is?

		Classification					Total	$\chi^2(p)$
		Similar to physical therapy	Medical profession	Working job	Nursing care	Etc.		
Gender	Male	38 (15.1)	59 (23.4)	9 (3.6)	5 (2.0)	1 (4)	112 (44.4)	4.18
	Female	56 (22.2)	75 (29.8)	6 (2.4)	2 (.8)	1 (4)	140 (55.6)	
Age group	10s	21 (8.3)	22 (8.7)	3 (1.2)	—	—	46 (18.3)	34.23*
	20s	36 (14.3)	29 (11.5)	6 (2.4)	—	1 (4)	72 (28.6)	
	30s	7 (2.8)	31 (12.3)	1 (.4)	—	1 (4)	40 (15.9)	
	40s	12 (4.8)	24 (9.5)	2 (.8)	3 (1.2)	—	41 (16.3)	
	50s	13 (5.2)	19 (7.5)	2 (.8)	2 (.8)	—	36 (14.3)	
	Over 60s	5 (2.0)	9 (3.6)	1 (.4)	2 (.8)	—	17 (6.7)	
	Total	94 (37.3)	134 (53.2)	15 (6.0)	7 (2.8)	2 (.8)	252 (100.0)	
Occupation	Student	50 (19.8)	46 (18.3)	8 (3.2)	—	1 (4)	105 (41.7)	25.92
	Government employee	9 (3.6)	11 (4.4)	1 (.4)	—	—	21 (8.3)	
	Service occupation	10 (4.0)	21 (8.3)	2 (.8)	1 (4)	1 (4)	35 (13.9)	
	Office worker	7 (2.8)	19 (7.5)	1 (.4)	1 (4)	—	28 (11.1)	
	Technical profession	8 (3.2)	14 (5.6)	2 (.8)	3 (1.2)	—	27 (10.7)	
	Etc.	10 (4.0)	23 (9.1)	1 (.4)	2 (.8)	—	36 (14.3)	
Total		94 (37.3)	134 (53.2)	15 (6.0)	7 (2.8)	2 (.8)	252 (100.0)	

* $p<.05$

Table 5. Who Do You Think OT Targets Are? And Where Can You Get OT?

Target for OT		Place to get OT	
Patient	<i>n</i> (%)	Institution	<i>n</i> (%)
Cerebrovascular disease	114 (45.2)	Rehabilitation hospital	151 (59.9)
Musculoskeletal disease	86 (34.1)	General hospital	99 (39.3)
Psychiatric disorders	54 (21.4)	Welfare facilities	26 (10.3)
Spinal cord injury	46 (18.3)	Community health center	14 (5.6)
Developmental disorders & cerebral palsy	44 (17.5)	Etc.	4 (1.6)
Geriatric illness	38 (15.1)		
Etc.	3 (1.2)		
Total(multiple response)	385(152.8)	Total(multiple response)	294(116.7)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고, 남성(8.7%), 10대(7.5%), 학생(9.5%)의 경우 나머지 성별, 연령대, 직업군 보다 작업치료가 우리생활에 필요하지 않다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7에서 작업치료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복수응답으로 “삶의 질 향상(34.9%)”, “사회참여 및 직업복귀(22.8%)”, “정상 발달(19.1%)”, “단순한 치료(16.3%)”, “고령화 시대(14.9%)”, “기타(.5%)”순으

Table 6. Is OT Necessary for Our Lives?

n(%)

		Awareness status		Total	$\chi^2(p)$
		Yes	No		
Gender	Male	90(35.7)	22(8.7)	112 (44.4)	3.96* (.047)
	Female	125(49.6)	15(6.0)	140 (55.6)	
Age group	10s	27(10.7)	19(7.5)	46 (18.3)	33.56*** (.000)
	20s	65(25.8)	7(2.8)	72 (28.6)	
	30s	35(13.9)	5(2.0)	40 (15.9)	
	40s	38(15.1)	3(1.2)	41 (16.3)	
	50s	35(13.9)	1 (.4)	36 (14.3)	
	Over 60s	15 (6.0)	2 (.8)	17 (6.7)	
Occupation	Student	81(32.1)	24(9.5)	105 (41.7)	12.56* (.028)
	Government employee	20 (7.9)	1 (.4)	21 (8.3)	
	Service occupation	33(13.1)	2 (.8)	35 (13.9)	
	Office worker	25 (9.9)	3(1.2)	28 (11.1)	
	Technical profession	22 (8.7)	5(2.0)	27 (10.7)	
	Etc.	34(13.5)	2 (.8)	36 (14.3)	
Total		215(85.3)	37(14.7)	252(100.0)	

p*<.05 **p*<.001

Table 7. Why Do You Think OT Is Necessary?

Classification	<i>n</i> (%)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75 (34.9)
Social participation(return to occupation)	49 (22.8)
Normal development	41 (19.1)
Simple treatment	35 (16.3)
Era of aging	32 (14.9)
Etc.	1 (.5)
Total(multiple response)	233 (108.4)

로 응답하였다.

한편 작업치료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조사결과 “물리치료와 비슷하다(64.9%)”, “필요성을 못 느낀다(18.9%)”, “다른 치료가 우선이다(13.5%)”, “대상자가 아니다(2.7%)”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인 성별, 연령대, 직업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5) 향후 작업치료의 전망은? 타인에게 권유할 의향은?

Table 8에서 향후 작업치료의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3.73 \pm .75$ 점으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의 연령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5$)를 보이며, 50대에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향후 작업치료의 전망이 높다고 하였다.

Table 8에서 보듯이 작업치료를 지인들에게 진료, 취업, 치료적 측면에서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5점 척도의 평균은 $3.64 \pm .75$ 점으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대, 직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IV. 고 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인력 중 하나인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 26130호, 2015)을 통해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체나 기구를 활용한 감각·활동훈련, 작업적 일상생활훈련, 인지재활치료, 삼킴장애재활치료, 상지보조기 제작 및 훈련, 작업수행분석 및 평가업무, 그 밖의 작업요법적 훈련·치료 업무로 세분화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증가와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로 작업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중 하나인 요양병원의 수도 2017년 1분기를 기준으로 2013년 1,136곳, 2014년 1,276곳, 2015년 1,339곳, 2016년 1,383곳, 2017년 1,502곳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7). 이와 같이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업치료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국내 작업치료에

Table 8. What Do You Think of Future Prospects of OT? And Do You Recommend OT to Others? ($n=215$)

		$n(\%)$	Future prospects of OT		Recommendation of OT to other people	
			$M \pm SD$	t/F	$M \pm SD$	t/F
Gender	Male	90(41.9)	$3.72 \pm .79$	-.06	$3.62 \pm .73$	-.25
	Female	125(58.1)	$3.73 \pm .72$		$3.65 \pm .78$	
Age group	10s	27 (12.6)	$3.81 \pm .88$	2.62*	$3.74 \pm .76$	2.05
	20s	65(30.2)	$3.49 \pm .79$		$3.49 \pm .69$	
	30s	35(16.3)	$3.71 \pm .57$		$3.46 \pm .56$	
	40s	38(17.7)	$3.79 \pm .78$		$3.68 \pm .84$	
	50s	35(16.3)	$4.03 \pm .66$		$3.91 \pm .85$	
	Over 60s	15 (7.0)	$3.73 \pm .59$		$3.73 \pm .80$	
Occupation	Student	81(37.7)	$3.62 \pm .81$	.69	$3.57 \pm .72$	.85
	Government employee	20 (9.3)	$3.80 \pm .83$		$3.65 \pm .88$	
	Service occupation	33(15.3)	$3.85 \pm .80$		$3.70 \pm .88$	
	Office worker	25(11.6)	$3.68 \pm .56$		$3.56 \pm .65$	
	Technical profession	22(10.2)	$3.82 \pm .66$		$3.55 \pm .67$	
	Etc.	34(15.8)	$3.79 \pm .69$		$3.85 \pm .74$	

* $p<.05$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지도 조사결과, 작업치료를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는 비율은 8.5%였다. Kim(2015)의 연구에서는 정상 성인들 중 치매에 관심이 있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90%, Jung과 Jang(2013)의 연구에서는 재활치료와 관련된 사람들 중 88% 이상, 그리고 Park(2009)의 연구에서는 장애아동부모들 중 94% 이상이 작업치료를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보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다른 분야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작업치료의 인지도는 비교적 높았으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는 낮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작업치료 인지 유무에 대한 상대적인 비율의 차이는 작업치료를 알고 있거나 들어보았다는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본 연구에서 40대 이상에서 작업치료를 대해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는 비율이 비교적 낮은 양상을 보였으며, 이는 Jang 등(2014)의 연구에서 작업치료가 최근 2000년 이후에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과 일치한다. 작업치료를 들어보았거나 알고 있다고 응답한 252명 중 학생의 경우 10대는 작업치료를 대해 낮은 인지도(18.3%)를, 20대는 비교적 높은 인지도(23.4%)를 보였다. 이는 Song 등(2010)의 연구인 부산 지역 고등학생 71.67%가 작업치료과에 대해 들어보지 않았다는 결과와 비교한다면 10대의 경우 작업치료를 대한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20대의 경우 대학 입학 전 다양한 전공에 따른 학과선택에 대한 고민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지도가 높아 졌을 거라고 추정되며, 2017년 기준 62곳의 대학교가 작업치료(학)과를 개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7)됨으로써 대학생들 간의 교류와 친목회 등의 모임 등이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치료를 알게 된 경로’에 대해 10대는 진로·취업 탐색을 통해, 20대부터 40대까지와 전체 직업군은 “지인(친구 등)을 통해”, 50대 이상은 “본인(가족)의 치료경험”을 통한 경우가 많았으며, 10대의 경우 향후 대학 진학 및 취업을 위해 작업치료를 탐색해 보았을 것으로 생각되며, 20대부터 40대까지와 전 직업군의 경우 앞서 기술한 학생들 간 교류와 친목회 등의 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0대 이상의 경우 Park과 Jeong(2009)의 연구에서 50세 이상의 근골격계질환 발생 비율이 높은 결과와 Sim, Ahn과 Son(2012)의 연구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뇌혈관질환사망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통해 본인 또는 가족이 작업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작업치료를 알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작업치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20대는 “물리치료와 비슷하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이는 두 학문 일부분의 유사성과 2017년 기준 국내 대학교 내 물리치료(학)과 105곳으로 상대적으로 작업치료(학)과가 적으며 그 결과 균등하지 않은 보건의료 인력의 배출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생각된다(Korea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2017).

‘작업치료 대상’과 ‘작업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해 “뇌질환 환자(45.2%)”와 “재활병원 및 재활센터(59.9%)”가 다른 항목에 비해 높았고, Song 등(2010)의 연구 중 만약 작업치료과를 졸업한다면 어디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의 답변으로 병원과 재활센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뇌질환 환자의 수와 요양기관의 수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 사료된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은 약 13.5%로 고령사회를 향하고 있고, 고령화로 치매 등의 만성퇴행성질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Cho & Na, 2017;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7). 이와 같이 노인성질환자에게도 작업치료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성질환 환자(15.1%)”가 ‘작업치료 대상’이라는 응답은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다. 또한, ‘작업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보건소(5.6%)”가 다른 항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2017년 1분기를 기준으로 요양병원 등에 비해 비교적 적은 작업치료사의 배치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작업치료 제공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7).

‘작업치료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지’에 대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은 20대와 학생은 대학 교육 등의 영향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 사료되며,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많은 10대와 학생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식과 경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작업치료의 전망’에 대해 높게 나타난 50대의 경우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본인(가족)의 작업치료 경험 후 향상된 모습 등의 영향으로 작업치료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반면, 낮게 나타난 20대의 경우 대학교육 등을

통해 작업치료 필요성을 느끼지만 상당수가 작업치료를 병원(재활센터) 및 종합병원(일반병원)에서 받을 수 있고 작업치료가 물리치료와 비슷하다고 답변한 점을 통해 물리치료와의 차별성을 느끼지 못해 작업치료의 전망을 낮게 평가하였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인지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초등 및 중등교육 현장에서 미래를 위한 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작업치료에 대해 작업치료학회나 협회차원의 홍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하여 잠재성을 갖춘 10대들에게 자신의 진로선택을 위해 작업치료를 스스로 탐색하게 함으로써 작업치료의 인지도가 높아지는 직접적인 영향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족·친구들에게 작업치료에 대해 알려주고 추천해줌으로써 타인의 인지도까지 높아지는 간접적인 영향이 공존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아울러 작업치료 정의, 대상, 받을 수 있는 곳 등의 다양한 정보도 알기 쉽게 홍보자료로 제작하여 활용한다면 일반 대중들이 작업치료가 필요할 때 보다 쉽고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에게 작업치료의 정의, 작업치료사의 역할 및 임무 등의 전문성을 상기시키는 교육을 강화한다면 타인이 작업치료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이해를 바탕으로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해 명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통해 답변을 들은 타인은 작업치료에 대해 보다 친숙해질 수 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작업치료의 필요성을 느끼며 전망을 높게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설문 지역이 광주·전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지역 일반 대중들의 작업치료 인지도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까지 작업치료 인지도에 대한 선행 연구가 미미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와 설문항목 및 척도도 동일하지 않아 본 연구결과와 비교·평가하는데 있어 제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지 문항과 설문절차 설계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수차례 수정·보완하여 내적타당도를 높인 점과 다수의 피설문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점에 본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V. 결 론

본 연구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우리나라 작업치료의 인지도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인지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현재 작업치료 분야는 예전에 비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향후 작업치료 인지도 개선을 위한 방향설정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이를 통하여 작업치료 인지도가 향상됨으로써 작업치료의 위상은 차츰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6130호 (2015). Retrieved from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8885&ancYd=20150303&ancNo=26130&efYd=20150303&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 Cha, S. M., Lee, J. W., Oh, H. J., Lee, S. W., & Lee, J. S. (2015). Public awareness of Busan on self-driving by the people with physical disabled.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for the Aged and Dementia*, 9(1), 15-23.
- Choi, H. S., Kang, B. S., Bang, Y. S., Song, C. S., Oh, H. W., Lee, J. S., ... Cho, M. S. (2014). *An introduction to occupational therapy*. Seoul, Korea: Gyechuk publishing Co..
- Christiansen, C. H., & Haertl, K. (2013). A contextual history of occupational therapy. In B. A. Schell, G. Gillen, M. Scaffa & E. S. Cohn (Eds.), *Willard & Spackman's occupational therapy* (pp. 9-34).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 Jang, J. S., Ra, N. Y., Lee, N. R., Won, J. Y., Lee,

- K. M., & Kim, J. H. (2014). Basic investigation for publicity of Kore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4(2), 23-30.
- Jung, M. J., & Jang, C. (2013). Awareness on occupational therapy by the people involved in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1(2), 105-117.
- Kang, K. W., & Song, S. W. (2017). Analysis of public recognition survey for the Jeju agricultural safety and health cente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 545-556. Retrieved from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50026033788>
- Kim, E. J., & Choi, Y. I. (2012). Survey on the perception of ordinary people toward assistive technology dev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ssistive Technology*, 4(1), 27-34.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99536289>
- Kim, K. Y., & Kim, J. Y. (2013). Effects of oriental medical tourism packages images and recognition on purchase intention of consumers.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7(3), 5-20.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99536289>
- Kim, S. J. (2000). *A stud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gnition on crops and trees appeared in the their textbooks*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 Kim, Y. S. (2015). *A study of questionnaires about the dementia awareness and relative factors in community dwelling healthy adults*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Jeon-Buk.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7). *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Retrieved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4/1/index.board?bmode=read&aSeq=51397
- Korea Physical Therapy Association. (2017). *University information*. Retrieved from <http://www.kpta.co.kr/kpta/#/about/university?category=10>
-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7). *Status of OT offering university*. Retrieved from https://www.kaot.org/kaotN/html/03/03_02.asp
- Lee, H. S., & Kim, J. M. (2011). A study on the image of occupation therapy in the Dep. of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mmunity Based Occupational Therapy*, 1(1), 73-78.
- Lee, T. S., & Song, M. Y. (2012). Research of the necessity and awareness of the oriental physical therap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hysical Therapy Science*, 19(2), 9-15.
-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17).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s (Status of population by age)*. Retrieved from <http://www.mois.go.kr/frt/sub/a05/ageStat/screen.do>
- Mu, K., Royeen, C., Paschal, K. A., & Zardetto-Smith, A. (2001). Promoting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occupational therapy and physical therapy in young school aged children: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Occupational Therapy in Health Care*, 15(3), 89-99. doi:10.1080/J003v15n03_05
-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17). *Health insurance statistics*. Retrieved from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4&tblId=DT_HIRA44&conn_path=I3
- Olaoye, O. A., Emechete, A. A. I., Onigbinde, A. T., & Mbada, C. E. (2016). Awareness and knowledge of occupational therapy among nigerian medical and health sciences undergraduates. *Hong Kong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7(1), 1-6. doi:10.1016/j.hkjot.2016.02.001
- Park, H. Y., Cho, D. Y., Lee, J. H., Kim, H. S., Kim,

- J. S., & Park, S. H. (2011). Current state and awareness level of occupational therapy major students in Korea I : General status and reasons for major sele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19(4), 79–94.
- Park, K. H., & Jeong, B. Y. (2009). Characteristics and causes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for employees aged 50 years or older. *Journal of the Ergonomics Society of Korea*, 28(4), 139–145. doi:10.5143/JESK.2009.28.4.139
- Park, S. Y., Hwang, E. Y., & Lee, E. S. (2010). A descriptive study on the music therapy conducted to public recognition, comprehension, and expectation.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2(1), 66–81.
- Park, Y. H. (2009). *Study on recognition and needs of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for occupational therapy: Focused on voucher service*(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nam
- Sim, J. H., Ahn, D. C., & Son, M. A. (2012). Difference of area-based deprivation and education on cerebrovascular mortality in Korea.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2, 163–182. doi:10.4332/KJHPA.2012.22.2.163
- Son, W. K., & Kim, M. J. (2016). A study of the image of day care center teachers recognized by ordinary people.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98, 89–112. Retrieved from <http://www.riss.kr/link?id=A101886672>
- Song, M. O., Jang, C., Bae, J. W., Bin, S. Y., Lee, K. R., Kim, J. E., ... Jeong, R. Y. (2010). A study on the recognition for occupational therapy of highschool students on Busa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Health Sciences*, 7(1), 69–83.
- World Feder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7). *Definitions of Occupational Therapy from Member Organisations revised June 2017*. Retrieved from <http://www.wfot.org/ResourceCentre.aspx>

Abstract

A Survey on the Awareness of Occupational Therapy of the Public in General

Hwang, Do-Yeon*, B.S., O.T., Park, Je-Mo*, M.S., O.T.,
Kim, Hee-Dong*, M.S., O.T., Hwang, Jae-Hyun*, Shin, Ji-Hye*,
Jung, Hwa-Shik*, Ph.D.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rvey the awareness of Occupational Therapy of the general public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Methods: A randomly selected 2,980 subjects from general public in Gwangju and Jeonnam province who agreed to a survey were participated. If the subjects had heard or known about OT, then they were guided to continue to the next questions. However if they haven't, the surveyor checked the questionnaire and finished the surve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four questions for OT awareness and other four questions for OT necessity. The data analysis were carried out for 2,967 subjects by excluding 13 respondents who responded poorly to the questions.

Results: Of the 2,967 subjects, 252(8.5%) participants said that they had heard or known of OT. Being aware of O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erms of age and occupation($p<.001$) especially in their 20s(28.6%) and student group(41.7%). Regarding the necessity of OT, 215(85.3%) participants responded that OT is needed for our lives and an average of $3.73 \pm .75$ out of 5 point scale was evaluated on the prospects for future OT.

Conclusion: The current OT field is increasingly expanding as compared to the past. However, it has still relatively low recognition yet. Therefore,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useful as a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improving OT awareness.

Key words: Awareness, Awareness survey, Occupation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status